



Market Index / 28일

코스피지수 ▼	2280.45 -52.34	코스닥지수 ▼	692.37 -11.82	유가(WTI, 달러) ▼	79.53 -0.03	환율(원)	1USD 100¥	살때 1290.69 963.17	팔때 1246.31 930.05	1EUR 1377.32	살때 1377.32	팔때 1323.58	1CNY 182.04	살때 182.04	팔때 191.14
---------	-------------------	---------	------------------	---------------	----------------	-------	--------------	-------------------------	-------------------------	-----------------	---------------	---------------	----------------	--------------	--------------

새해 제주 기업 체감경기 전망 더 나빠졌다

제주상의 제조업체 조사... 4분기 88→내년 1분기 73 경영에 영향 준 요인 내수경기·원자재값 많이 꼽아

제주지역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내년 1분기 경기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2년 전 수준으로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제조업체 87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73으로 올해 4분기(88)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분기에

101로 기준치(100)를 넘었다가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이 지속된 것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분기(68)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이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로 조사항목별로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세가 뚜렷했다. 4분기에 110이었던 매출액 전망치는 86으로 24p 떨어졌다.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83으로 11p 떨어졌고,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전망치도 19p 떨어진 78로 조사됐다. 설비투자 전망치는 1p 하락한 90, 사업장 공장 가동여건 부문 전망치는 13p 떨어진 86이다.

또 도내 기업 가운데 57.4%는 올해 매출실적 목표에 미달했다고 응답했다. 25.3%는 목표 달성, 17.3%는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목표 미달 66.7%, 목표 달성 20.7%, 초과 달성은 11.5%라고 응답했다.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의 요인으로는 40.2%가 '내수 시장 경기'를 꼽았다. 이어 원자재 가격(33.3%), 수출시장 경기(9.2%), 고금리 상황(8.1%), 고환율 상황(5.8%) 순이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도내 건설과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내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며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애월서 생산된 소구형 양배추 첫 수출

애월농협, 1.8t 홍콩에 수출

제주시 애월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구형 양배추가 처음 수출길에 올랐다. 애월농협은 최근 일반 양배추의 1/4 크기인 소구형 양배추 1.8t을 홍콩에 수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월농협의 소구형 양배추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월농협은 소구형 양배추의 홍콩 현지 반응을 확인 후 수출량을 확대하는 한편 콜라비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의 수출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일반 양배추보다 작고 잎이 얇아 식감이 부드러운 소구형 양배추는 샐러드용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



일반 양배추(왼쪽)와 소구형 양배추.

고 있다. 애월농협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제주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올해 지역의 30농가를 모집해 10ha 규모로 재배실증단지 조성했다. 이를 토대로 소구형 양배추를 지역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제주 콜라비 수확 2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콜라비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인구 자연감소 10월까지 1000명 육박

사망자 4039명으로 출생아 3074명보다 많아 지난해 사상 첫 501명 자연감소 후 올해 확대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1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 인구가 자연감소한 제주를 올해는

10월까지 자연감소가 1000명에 육박하며 연말까지 지난해 감점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28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라

확대해 현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지난해의 감점 이상 규모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17년만 해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 1299명이 자연증가했던 제주를 2018년 869명, 2019년 541명, 2020년 37명으로 해마다 자연증가 인구가 감소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며 501명이 자연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도내 출생아 수는 2020년 3989명으로 처음 4000명 아래로 떨어진 후 2021년엔 3728명까지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출생아 수는 3074명으로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혼인 감소와도 영향이 있다. 2019년 3358건이던 도내 혼인건수는 코로나 첫해인 2020년 2981건으로 처음 3000건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2661건으로 더 줄었다. 올해 10월까지 224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138건)보다 5.0% 증가했는데 지난해 감소폭이 컸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연말까지 도내 사망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4229명)보다 더 늘어나 5000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자차 타고 뱃길로 제주 찾는 여객 늘었다

여객 전년 대비 65.7% 증가

올해 뱃길을 통해 제주항을 이용한 여객과 화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 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인천, 목포, 완도, 진도, 여수 등 9개 항로 12척의 연안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한 여객은 189만30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4만2632명)보다 65.7% 증가했다. 2020년 같은 기간(93만4812명)에 견줘서는 102.5%

늘었다.

택배 화물차량과 개인 승용차 등을 포함한 차량 수송량도 69만237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3만6017대)보다 29.2% 늘었다. 2020년 같은 기간(42만6638대)에 견줘서는 62.3% 증가했다.

관광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제주 여행 수요 증가와 성수기 때 늘어난 항공, 렌터카 요금 등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선박과 자차를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서귀포시, 내년 10억 투입

서귀포시가 올해 첫 시범 운영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내년 확대 시행한다.

시는 내년 1월 18일까지 '2023년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

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경영주에 한함),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직거래 판매 후 실적보고서, 택배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 지역 내 5000농가를 대상으로 박스당 택배비의 50%(2500원), 최대 8박스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리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향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홍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 하늘, 팔삭, 세이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문의: 010-2002-2002)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에 예약 주문생산 탕빛1호, 선경,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농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수산리735)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귤	3년생
진지향	3년생
탕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탕빛1호, 병유자, 아마나스, 레몬, 탕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공천, 오하라배니(공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요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